



# “국내 유일 민속·자연사 융합 공간 특성 살려야”

민속자연사박물관 용역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전문 학예인력 확충 요구  
탐라전시실 등 개편 제안  
원도심 입지 이점 활용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전시실.

국내 유일의 민속과 자연사가 융합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전문 인력 확충과 자연사 분야를 포함한 운영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전시 콘텐츠 강화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용역에 담긴 내용이다.

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이번 용역은 민속자료가 제주돌문화공원으로 이관되는 상황을 반영해 추진됐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의 민속 기능이 퇴색될 우려가 깊어지면서 이를 해결할 새로운 전시 방향과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연구 용역에서는 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 제주시 원도심권인 신산공원 내에 있고 인근에 각종 역사·문화 시설이 분포하고 있는 장소적 이점을 활

용해 민속과 자연사를 아우르며 제주를 넘어 동북아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리노베이션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박물관 방문객의 시설 개선과 전시 콘텐츠 강화에 대한 희망 수요와 욕구도 다수 확인됐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 확충으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등 콘텐츠 업그레이드와 운영 효율성을 증진해야 한다

고 했다. 현재 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의 전반적인 민속과 자연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일한 시설로 분야별 학예인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총 6명의 학예인력이 박물관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 학예인력 보강, 조직과 업무 분담의 재구성을 통해 향후 박물관의 운영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이유다.

차별화된 공간의 정체성을 강화하

기 위해 전시관별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조정하는 내용도 용역 보고서에 들어 있다. 전시기법의 획기적 변화를 전제로 자연사전시실(지질, 육상생태, 버섯, 곤충, 척추동물관), 민속+자연사 형태의 탐라전시실(구 제1민속전시실), 민속전시실(구 제2민속전시실), 제주체험관, 제주바다전시관으로 나눈 연출 주제, 전시 스토리 구성, 연출 개선 방안을 담았고 참고래뼈를 활용한 상징조형물 전시 계획도 제시했다. 야외 부지를 개선해 재구성한 후 박물관 외부를 개방해 지역민의 휴식공간, 문화축제와 연계한 지역 상생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민속 분야를 제외한 운영 프로그램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속과 자연사가 융합된 박물관인 만큼 자연사 분야, 민속+자연사 융합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과 비대면 관광 트랜드에 맞춘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도민속자연사박물관 측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박물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국비 공모 사업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 보강, 시설 개선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sunny@halla.com

# 36개 마을 제주어구술자료집 나왔다

제주학연구센터 8권 출간  
2017년 이래 총 36권 제작  
표준어 대역으로 이해 높여  
‘제주어대사전’ 용례 활용  
“마을 구술채록 이어져야”



제주학연구센터가 2014-2016년 진행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을 토대로 표준어 대역을 포함 발간 작업을 마무리 지은 36개 마을 제주어구술자료집.

제주 지역 36개 마을에 대한 제주어 구술자료집이 완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센터장 김순자)가 최근 제주 사람들의 삶을 제주어로 기록하고 표준어로 대역한 제주어구술자료집 8권을 추가로 발간했다.

제주어구술자료 발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결과물인 제주어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총 4년 동안 이뤄졌다. 15명의 연구진이 참여해 36개 마을에 사는 80대 이상의 토박이를 중심으로 총 109명의 어르신들을 만났다.

그 결과물은 2017년 구좌읍 송당리, 안덕면 동광리 등 10권으로 처음 묶였다. 2018년에는 조천읍 함덕리 등 10권, 2019년 조천읍 신촌리 등 8권이 각각 제작됐다.

근래 출간된 8권은 제주시 외도동, 제주시 노형동, 서귀포시 토평동, 안덕면 덕수리, 대정읍 인성리, 대정읍 구억리, 한림읍 대림리, 애월읍 봉성리를 대상으로 했다. 각 권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조사 마을, 제보자의 일생, 발말, 들림, 바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통과례 등으로 구성됐다. 어르신들의 이야기에는 마을과 개인의 삶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겼다.

기존에 발간된 제주어 구술 자료들은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면서 제주어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번 제주어구술자료집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주어와 나란히 괄호 안에 표준어로 대역했다. 표준어로 바꾸기 어렵고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리 쓰이거나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기고 주석을 달아 그 내용을 밝혀 놓았다.

이같은 제주어구술자료집은 ‘제주어대사전’ 편찬을 앞두고 제주어가 생생히 살아있는 용례로 활용되고 있다. 제주어를 사용했던 제주사람들의 언어문화를 마을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학연구센터 측은 “제주어 구술 자료는 제주어 연구만이 아니라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규명하는 귀한 자료”라며 “이 자료집이 소멸 위기의 제주어를 보존하고 제주어 교육과 연구의 기초자료로 널리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구술자료집에는 마을의 특성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소중한 이야기가 사라지기 전에 다른 마을의 구술 채록도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료집은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www.jst.re.kr)에 게시할 예정이다. 문의 726-9154. 전선희기자

# 코로나에 문화예술교육 비대면 허용

문화예술교육사업 공모  
교육기본회차 부담 줄고  
토요학교 주중비율 늘려

모와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기획공모(다년지원형) 분야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기획공모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 2차년도에 따라 작성서식과 평가기준도 정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도 비대면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2일부터 2021년 제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 예산은 총 13억 3000만원 규모다. 공모 분야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일반/기획) ▷지역특성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일반/기획)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장애인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사업(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지원사업)이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지역특성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일반 공

모는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반영해 문화예술교육단체가 교육 운영 시 비대면 교육 차이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교육기본회차도 종전 30회에서 20회로 낮췄다. 토요문화학교는 주중 운영비율을 30%까지 늘렸다.

접수는 이달 17일까지 국가문화예술교육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이뤄진다. 심의 결과는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800-9171-3, 9176. 전선희기자

# 국립제주박물관 소장품 관리 부적정

문체부 종합감사 결과  
복합문화관 건립 공사  
설계 경제성 용역 허용

있고 온·습도 등 보존환경 미흡, 전시실 내 전열장 감시센서 미설치 등 소장품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 중복, 이미지 누락 등 소장품 전산 DB 관리도 미흡했다.

전시·체험 공간 조성사업에서는 전시실 실시설계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별 과업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각각의 계약을 발주했다. 이 때문에 문화체험실과 어린이박물관 등 동일 공간을 각 사업 대상으로 중복 설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립제주박물관이 2001년 개관 이후 수장고 보관 소장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유물 등을 기증받으면서 수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7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박물관이 수행한 주요 사업과 기관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다.

문체부가 최근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국립제주박물관은 기증품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미등록, 기증품 변경 세부내역 미관리 등 기증품 관리가 부실했다. 유물 기증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위원회를 열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심의한 점도 지적됐다. 또한 개관 이래 소장품에 대한 전수조사가 없

복합문화관 건립 공사 추진 과정에 선 설계 경제성 검토용역을 원설계용역 완료 1개월 전에야 발주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납품받음으로써 검토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원설계 대비 비용 절감과 성능향상 효과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다. 설계공모를 당선자와 수의계약하면서 결재없이 계약(구매)을 추진한 사례도 적발됐다. 전선희기자

# 서귀포예술단 신년음악회 오늘 서귀포시 유튜브 공개

제주도립 서귀포예술단(서귀포합창단, 서귀포관악단)이 2월 4일부터 서귀포시청 유튜브를 통해 2021 신년을 약회 실황을 녹화 중계한다.

이번에 동영상 채널로 공개되는 신년음악회는 지난달 28일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비대면 온라인 연주회로 녹화됐다. 새해를 맞아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음악으로 응원

과 치유의 힘을 선물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최상윤이 지휘하는 서귀포합창단은 ‘아 카펠라 서곡’, ‘삼다도 소식’, ‘비바리’, ‘문을 열어서’ 등을 들려준다. 마지막 곡으로 교성곡 ‘나의 조국 대한민국’ 중 ‘한라산’을 준비했다.

이동호가 지휘하는 서귀포관악단은 로시니의 ‘세미라미데 서곡’, ‘태양의 찬가-대지의 울림’ 등을 선사한다. 제주 소프라노 오승희가 협연하는 한국 가곡 ‘내 맘의 강물’, 오페라 ‘토스카’ 중 아리아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도 들을 수 있다. 전선희기자

**축 진**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문경진**

**홍충효**

**안우진**

**임홍철**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구좌읍단체협의회 일동**

노인회 회장 김승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강봉우, 연합청년회장 강영호, 청소년지도협의회장 부영배, 구좌로타리클럽회장 부영배, 여성농업경영인구좌읍회장 고영미, 어촌계장협의회회장 부태형, 소비자교육중앙회구좌분회장 고수연, 지역자율방재단장 이달우, 고태연, 새마을부녀회장 김희정, 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장 강창협, 장애인지원협의회회장 한신자, 구좌청년회의소회장 고대환, 농촌지도자구좌읍회장 이성진, 해녀회 회장 강창하, 구좌합창단 단무장 임영희, 주민자치위원장 김기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지홍, 구좌라이온스클럽회장 김지홍, 농업경영인구좌읍회장 김상철, 구좌읍농민회장 김만호, 민속보존회장 고길월, 친환경농업인구좌읍협의회회장 한태호, 이장협의회장 광기범, 바르게살기위원장 김두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오순덕, 구좌라이온스클럽회장 김지홍, 농업경영인구좌읍회장 김상철, 구좌읍농민회장 김만호, 민속보존회장 고길월, 친환경농업인구좌읍협의회회장 한태호, 재향군인회장 김영희

**축 진**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노동정책팀장**    **제주시 화북동장**    **제주시 마을활력과장**

**현종휘**

**강인규**

**양경원**

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구좌읍단체협의회 일동**

노인회 회장 김승균, 새마을부녀회장 김희정, 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장 강창협, 장애인지원협의회회장 한신자, 구좌로타리클럽회장 부영배, 여성농업경영인구좌읍회장 고영미, 어촌계장협의회회장 부태형, 소비자교육중앙회구좌분회장 고수연, 지역자율방재단장 이달우, 고태연, 새마을부녀회장 김희정, 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장 강창협, 장애인지원협의회회장 한신자, 구좌청년회의소회장 고대환, 농촌지도자구좌읍회장 이성진, 해녀회 회장 강창하, 구좌합창단 단무장 임영희, 주민자치위원장 김기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지홍, 구좌라이온스클럽회장 김지홍, 농업경영인구좌읍회장 김상철, 구좌읍농민회장 김만호, 민속보존회장 고길월, 친환경농업인구좌읍협의회회장 한태호, 재향군인회장 김영희